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4.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14 / 7



표지 사진 · 회원

7월의 들꽃 중에서는 나리가 가장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꽃잎이 가늘고 어린 하늘나리가 발길을 멈추게 한다. 들꽃은 그 꽃이 저절로 자라는 그 장소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덩굴 속에서 섞여서 피어 있을 때 그 꽃이 지닌 아름다움과 품격이 막힘없이 드러난다.

- 법정 -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신선한 아침을
처음 마음으로	08	순간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13	유월 유두날
책 속의 책	16	예언자
샌디에고 암탉	18	착한 아내들
사색의 뜰	21	음악의 매력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4	아름다운 마무리 - 강성녀 어르신
내 마음 속 풍경	26	부자집 할머니는 왜 자살했을까?
참교육 이야기	30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4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 영화 <Her>
한국불교전설	38	이성계의 꿈 <한번 · 석왕사>
천진난만	42	어진 사람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3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 신선한 아침을

글·법 정(法 頂)

신선한 아침입니다. 간밤에 한줄기 소나기가 지나가더니 풀잎마다 구슬 같은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투명한 초록으로 빛을 발합니다. 세상이 새로 열린 듯한 이런 아침은, 일찍 깨어난 살아 있는 것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나는 이 여름 앞뜰에서 무심(無心)을 익히면서 풀 향기 같은 잔잔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미명(未明)의 예감 속에서, 그리고 해가 기운 뒤 산그늘 아래서 풀을 하나하나 뽑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한적하고 편해집니다. 방 안에서 좌선을 하거나 독경하는 시간보다 훨씬 생생하고 그윽한 정신상태입니다. 번뇌무진(煩惱無盡)이라더니 잡초

또한 무진입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이 돌아옵니다. 한동안 오두막을 비워 두었다가 돌아오면, 앞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채소밭에 돌아난 잡초도 매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비워 둔 집에 균불을 지피고 먼지 털고 걸레질하고 이것저것 정리정돈하려면 시간과 기운이 함께 달려요. 그러나 이제는 요령이 생겨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의 풀 뽑는 일만 하더라도 그 전 같으면 잡은 참에 지치도록 단박에 해치우고 나아 직성이 풀리곤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씩 조금씩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씩만 해 나갑니다. 일에 쫓기지 않고 그 일 자체를 삶의 여백을 즐기듯 해 나갑니다. 풀을 뽑기 전에, 오늘 아침에는 이만큼만 하자고 미리 눈대중으로 금을 그어 놓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 번번이 그 경계를 넘게 마련이지만요.

장갑을 끼고 호미로 흙을 파서 풀을 뽑아냈는데, 일을 하고 나면 마당이 밭처럼 일구어져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텃텃하고 답답한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뽑습니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쓰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호미 대신 대꼬챙이를 쓰니 밭처럼 일구어지지 않아 일이 적습니다.

풀을 뽑으면서 문득 일어난 생각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풀 뽑기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잇따라 풀이 돌아나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마주쳤을 때 미리 겁부터 먹고 엄두를 못 내거나 미리 무서워하면서, 미적미적 미룬다면 아까운 시간만 허송

하면서 짐스런 삶이 되고 맙니다.

지금 마주친 이 일이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삶의 의미를 음미하듯 차근차근 헤쳐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극복 못할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이 촉촉이 젖어 오늘 아침에는 풀이 아주 잘 뽑혔습니다. 일에 재미가 붙어 부풀 듯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저 풀을 뽑고 나서 싸리비로 뜰을 말끔히 쓸었더니, 내 마음속 뜰도 아주 산뜻하고 말끔해졌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마음으로 귀착됩니다. 한 마음이 맑고 평안하면 그 둘레에 맑고 평안한 그늘을 드리우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한 마음이 흐리거나 불안하면 그 둘레도 흐리고 불안한 기운으로 감싸게 되는 게 생명의 메아리입니다.

이와 같이 신선한 아침에는 많은

것이나 번잡스런 일에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시간에 시끄러운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거나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에 눈을 파는 것은 모처럼 찾아온 축복을 밀어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략)

좁쌀영감 같은 잔소리 그만 하고 몇 마디 소감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둘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얽혀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 우리 모두가 짓눌려 고통과 울분을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얼굴이고 존재양식이라고 생각하니 그저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정치꾼들은 마치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라도 들어선 듯 착각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어디 말끝에 달렸습니까. 지은 지 5년밖에 안된 건물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한 그런 참사의 요인이 우리 안에 세균처럼 만연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건물 주인과 건축업자, 그리고 부패 공무원에게만 부실 공사의 책임이 있을까요? 그와 같은 비리와 부정이 공공연히 관행화되고 거래된 이 사회에 몸담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책임이 없었을까요?

책임이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심리적으로나 행동으로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결과적으로 무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교통 질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질과 속얼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집안이나 직장에서는 어엿한 인격체가 일단 차량의 행렬에 끼여들면 난폭해지고 인격 부재의 뻘뻘스런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은 무질서

와 함께 일종의 사회악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악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선진국을 꿈꿀 수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선진국에 끼여들지 않더라도 좋으니, 사람인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간 채 물건과 돈만 나도는 세상은 너무 삭막하고 비정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그토록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갖 얽힘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평안이 따릅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진부하고 시들하고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책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 함께 음미하고자 옮겨 적습니다.

“... 혼자서 자란 아이들은 혼자 살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았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다. 혼자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은 누구나 혼자라는 사실을 이해

한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이런 순간을 맞닥뜨릴 것에 대비하여 미리 연습을 하면서 살아간다.”

현자들은 말합니다. 홀로 명상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지나간 일들을 기억에 담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 버린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불행 중 어떤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는 데서 옵니다. 지나간 기억에 얽혀들거나 매달리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홀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처럼 벗어난 갈등의 늪에 다시 뛰어들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위가 곧 내일의 나를 만들어 냅니다. 제자리에서 맴도는 타성과 게으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악덕입니다. 일찍 깨어나 신선한 아침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십시오. (1995)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 순간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글·덕 운(德耘)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마음속에는 갖가지 욕망과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물욕과 색욕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구불만 등으로 일상생활이 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그대로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이리저리 날뛰는 것처럼 제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마음을 도심(道心)에 두고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살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놓아두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에 이리저리 끌리리며 자기의 삶의 좌표마저 흐려지고 마는 것

입니다.

하안거 결제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스님들은 결제에 들어가면 포살을 합니다. 계문을 외며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끝없이 방만해 집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경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사람의 마음 바탕을 가려서 선법(善法)을 알 수 없게 하므로 오개장(五蓋障)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탐욕개(貪慾蓋)입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탐욕은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즉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재욕입니다. 이러한 오욕이 사람의 마음 바탕을 가리기 때문에 탐욕개라고 합니다.

둘째는 진에개(瞋恚蓋)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충족되지 않고 관심을 얻지 못하면, 마음속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곧 매사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번 진심(嗔心)을 내면 만 가지 덕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에가 마음 바탕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는 도거개(掉擧蓋)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일이란 끝이 없는 것이고, 좋고 낫은일도 상대적일 뿐입니다. 이러한 욕망과 일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끝없이 근심함으로써 마음 바탕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의법개(疑法蓋)입니다.

일단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되든 안 되든 쪽 밀고 가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장애가 많습니다. 수행이 장애가 없고 쉽다면 누군들 성불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영험이 나지 않으면 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참선을 하면서도 정신을 집중하여 몰입하지 않고 견성성불(見性成佛)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수면개(睡眠蓋)입니다.

잠을 많이 잠으로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마음의 바탕 자리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오욕 중의 하나인 수면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 먹지 않는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며칠 잠 자지 못하는 고통은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오히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행해나가

는 데 있어 일어나는 다섯 가지 장애 즉 오개장(五蓋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수행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해갈 때 극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맹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맹정진이란 스님들이 좌복에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에 미혹되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기의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큰 사찰에 가다 보면 심검당(尋劍堂)이라는 편액이 쓰여 있는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을 심(尋), 칼 검(劍)인데 여기의 칼은 취모검(吹毛劍)을 말합니다. 취모검이란 칼날 위에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놓고 입김으로 가볍게 불기만 해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마음의 칼 즉 지혜의 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검당이란 그 지혜의 칼을 찾기 위해 즉 견성성불(見性成佛)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곳이 심검당이란 뜻입니다.

선방에서 조용히 앉아 참선하다 보면 갖가지 번뇌(煩惱) 망상(妄想)이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오고 가는 자취도 없는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 번뇌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해태심(懈怠心)이 일어나게 되고, 화두를 잡고 용맹정진하기는커녕 혼침과 산란만이 분분해지는 것입니다.

흐리멍덩한 상태의 혼침과 산란이 거듭될 때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단칼에 요절낼 결심, 즉 이 몸으로 금생에 기필코 견성하여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해결하고자 말겠다는 신심을 다시 한 번 크게 일으켜서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맹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삼매(三昧) 속으로 나아갈 때 반야의

취모검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에 해탈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해탈의 세계는 바로 이곳에서의 삶이지, 멀리 있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중국의 방거사라는 분은 석두 희천 스님으로부터 도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었습니다.

日用事無別(일용사무별)이니 惟吾自偶偕(유오자우해라.

頭頭非取捨(두두비취사)하니 處處勿張乖(처처물장괴)로다.

朱紫誰爲號(주자수위호)아 丘山絕點埃(구산절점애)니

神通竝妙用(신통병묘용)은 運水與搬柴(운수여반사)로다.

이 계송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사란 별다름이 없으니  
오직 상대와 스스로 어울릴 뿐  
두두물물에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니

곳곳마다 어긋나지 않게 할지어다.  
붉은색 자주 빛을 누가 구분하는가.  
언덕과 산에 한 점 티끌도 없으니  
신통과 묘용이란 물 길고 나무하는 것이  
로다.

참된 도란 일상사와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와 더불어 서로 부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정진을 통하여 모든 생각에 취사가 없이 성인과 범부의 분별심이 떨어지고 청정과 오염에 차별 관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히 무심(無心)이 되어 자성과 어긋남이 없어집니다.

도를 깨친 후의 경지는 아무리 신통과 묘용이 있을지라도, 물 길고 나무하는 평소의 일상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깨쳐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맑고 청정한 본래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일상사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기 2558년 5월 초하루  
(2014년 5월 27일)

## 유월 유두날

글 • 강인철

‘호랑이 아버지에 사슴 같은 어머니’ 대부분의 전 세대 부모님들 모습이다 그랬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마 그러셨지 싶다.

오늘 그 어머니의 구십 수(九十壽) 생신을 맞으니 옛 생각이 간절하다. 살아생전 흐뭇하게 생일상 한 번 차려 드리지 못했던 회한이 가슴을 저민다. 오늘은 유두 날, 음력으로 유월 보름이다.

어렸을 적 우리 집은 인삼 농가였다. 씨삼의 파종은 물론 세근의 본포이식, 입노, 발치기, 김매기, 딸집기, 삼캐기, 깎기, 접기 등 일 년의 농사일은 모두가 음력이 기준이었다. 물론 우리들의 생일이나 명절, 기제사까지 생활의 이모저모도 음력이 아니면 셈이 되지 않았다. 그

래서 안방 윗목에는 큰 달력 밑에 늘 일력과 책력이 함께 놓여 있었다.

유두날의 유래를 ‘동국세시기’에서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상서롭지 못한 것을 씻어낸다(浴髮於東流水, 除不祥)고 했는데 그 자취를 따라가 보니 오래전 삼한(三韓) 시대까지 거슬러 오르고 있음은 선조들의 대단한 전통이 아닐 수 없다.

예부터 내려온 조상님들의 명절이 대부분 중국과 비슷하게 유래하고 있으나 유두날만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로 기록돼 있고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오월 단오, 칠월 칠석과 함께 온백성이 함께 즐겼던 풍성한 날이었다고 한다. 요즘은 달력에서조차 음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작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참배객 유의사항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불자들의 기도처입니다.

최근 더위와 주말 나들이로 많은 분이 길상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신도님과 참배객께서는 사찰 방문 시 유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어 수행은 물론 마음의 쉼터로서 모든 불자가 자랑스러워할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치게 노출된 옷(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소매 없는 상의 등)이나 슬리퍼를 신고 경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으로 애완동물, 자기용,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도량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행동, 지나친 애정표현을 자제해 주십시오.

게 혹은 찌꺼기 시늬만 낸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기서 24절기나 음력 명일을 찾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어머님은 복도 많으셔서 그런 좋은 날에 이 땅에 오셨나 보다. 그랬으면 오래오래 그 복을 다 누리셨어야 했는데... 요즘 같으면 나이 구십이라도 '예쁜 할머니쯤' 될 법도 하련만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하늘나라에 가신 후로는 자식들 집엘 한 번도 아니 오신다.

어머님 살아생전 유두날이면 우리들 4남매는 덩달아 신이 나곤 했었다. 단옷날 먹어본 수리 떡의 기억이 아름아름 잊혀질 무렵이라 유두날 푸짐하게 차려진 수단(水團)을 보면 배가 절로 부르고 더위까지 가시는 듯했다. 뭇쌀을 뺨아 조청 물로 반죽해서 밤톨만 하게 비벼 떡시루에 찐 것을 얼음물에 동동 띄워 "어여 먹게 우리 새끼들..." 하면서 한 사발씩 주셨다.

시절이 변하면서 유두날이 다른 명일의 대열에서 조금씩 멀어져 감

에도 어머니는 애써 그날을 강조하며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라.' 하셨다. 그런 명일(名日)이 바로 당신의 생일(生日)인 줄은 철이 든 한참 후에야 알았다. 생각할수록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되었다.

이제는 유두날이라 하여 특별히 머리를 감고 수단 백단을 만들 필요도 없는 시절이 되었다. 매일 샤워하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경단보다 훨씬 보기 좋고 맛있는 떡거리와 냉음료가 주위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어컨을 켜기만 하면 더위쯤은 걱정거리조차 아닌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 유두날의 풍습이 단순히 더위를 방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성시다. 그날을 전후하여 계절은 어김없이 봄을 털어 내고 여름으로 접어든다. 복(伏)날이 여름 한가운데 있어 무더위를 잘 이겨 내도록 지혜를 상기시켜 줬다면, 유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과 장마

와 더위를 미연에 대비하라는 예방적 의미를 암시해준 셈이었다.

지난날의 세시 풍습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매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애써 조심하며 살라고 예고(?)하셨던 조상님의 슬기만은 본받아 마땅할 일이다. 어머니께서도 '공부란 때가 있는 법, 제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별 볼일이 없다.'고 늘 이르셨다. 그 땐, 그 '때'가 언제이며 그 '별 볼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는데 영~뵈올 길이 없다.

미풍양속이든 어머니의 말씀이든 선현들의 슬기를 본받는다는 건 스스로 삶을 맑고 향기롭게 해주는 밑거름이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초석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는 달력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유월 유두날이지만 그러나 어머니~! 세월이 흐르고 시절이 변했다 하여도 유월 보름은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형제들이 모여 철 늦은 생신상(床)을 차린다.

강인철 님은 50여 년 동안 오대양 육대주 75개국을 여행한 1세대 배낭 여행가입니다. 2007년 「에세이21」을 통해 늦깎이 수필가로 등단했지만, 1969년부터 열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봉사 중이며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세계 속의 한국인' '국악의 새로운 이해' 등의 주제로 강의 중이며, 오래전부터 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한 달에 한 번! 소식지 발송 함께하실 분 ~~~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월 초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상사 내 본모임 소모임방 '세계일화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소 본모임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하기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한 달에 딱 한 번, 2시간만 시간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무국으로 참여 의사를 신청하시면 봉사 일정을 휴대폰 문자로 연락드리며, 시간이 가능하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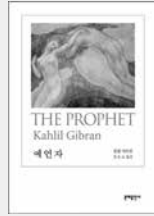
## 예언자

칼릴 지브란 지음

칼릴 지브란은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을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귓속의 귀에” 하는 말이라고 했다. 사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도 침묵에 있다. 너무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말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한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 무소유 중에서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저녁으로 ‘신문이요!’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법정(法頂) 스님은 1971년 ‘미리 쓰는 유서(遺書)’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24일, 입적(入寂)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해 주면

고맙겠다.”

법정 스님의 머리맡에 남겨진 6권의 책 중 한 권이 흰 종이로 책 표지가 씌어져 있었는데 그 책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6권의 책: 선학의 황금시대, 벽암록,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색, 선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월든)

칼릴 지브란(1833~1931)의 <예언자>는 20세기에 영어로 출간된 책 중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됩니다. 고전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 받는 작품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함석헌옹이 <씨알의 소리>에 번역해 실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1976년 문예출판사에서 강은교 시인의 번역으로 새로 나온 <예언자>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 현재는 문예출판사판 외에도 20여 종 가까운 <예언자>가 나와 있어 이 책의 인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대들 만일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다만 혐오로써 일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대들은 일을 버리고 신전 앞에 앉아 기쁨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게 나으리라. 왜냐하면, 그대들 만약 냉담하게 빵을 굽는다면, 인간의 굶주림을 반도 채우지 못할 쓴 빵을 구울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대들 원한에 차서 포도를 짓어간다면, 그대들의 원한은 포도주 속에 독을 뿜으리라.”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에서 말하는 노동은 계급 투쟁적 노동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브란은 “진실로

선과 악의 뿌리,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의 뿌리란 대지의 말 없는 가슴 속에 함께 뒤엉켜 있음”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처럼 비현실적인 세계를 시적인 비유로써 노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산문시집은 <어린 왕자> <갈매기의 꿈> <독일인의 사랑> 따위와 같은 반열에 놓입니다.

법정 스님은 왜 이 책을 평생 간직하며 삶의 길라잡이로 삼으셨을까요? 칼릴 지브란이 노래하는 순수와 사랑과 생명이 스님의 삶과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 특유의 서정적인 느낌으로 쓰인 이 책에서 삶에 대한 통찰력과 깊이 있는 사랑을 만나고, 그의 정신적 순례 과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지고, 마음가짐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착한 아내들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모처럼 시댁 조카가 미동부에 와 전화로 안부를 나누었다. 아들을 만나러 왔기에 전처(Ex-wife) 집에 머무른단다. 나도 조카며느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혀 소식을 몰라 궁금했었다. 한국에 살 때, 친구 집에서 우연히 친구의 동생을 소개하게 되어 인연이 된 두 사람이었었는데, 언젠가 이혼했다기에 매우 놀랐다. 생모가 키운 중학생 아들이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는가 보다.

재혼한 남편이 당분간 한 집에서 지내니 전처가 답답하다지만, 원래 착한 심성의 아내였으니 밥상은 정성껏 차려주었으리라. 고생하는 전처가 안쓰러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전남편의 이야기도 소설했다. 비록 당시는 화를

내며 헤어진 부부였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자식의 아픔은 뒤로하고 이혼했으니 말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현명한 사람은 부족함을 후회하면서 조금씩 성숙해진다든가.

솔직히 난 엑스 와이프(전처)라는 말을 미국에서 배웠다. 한국에 살 때는 아무개의 두 번째 아내라는 부를 가끔 보았지만, 전처라는 말은 없었다. 그때는 남자들이 세상을 휘두르는 시대였기에 억울해도 이혼할 수 없었다. 남녀가 공평하지 않은 사회제도, 칠거리악의 관습으로 묶인 여자는 늘 발언권도 없었다. 세상은 변하여 우리 여자들의 인권이 정상

의 궤도를 훨씬 넘어섰다. 남자처럼 사회에서 우뚝 선 여자들의 활동에 나는 힘찬 박수를 보내지만, 기가 너무 센 여인들이 자식과 집안을 휘두르는 걸 보면 좀 민망해진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는 집안의 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우아한 꽃이 아닌가.

우리 동네에 한 이웃아저씨가 세 들어 딸하고 살았다. 그는 꽃나무를 좋아하여 여러 개의 장미를 화분에 기르고 있었다. 평소에도 나도 집 정원 일을 많이 하기에 담 곁에 서서 종종 그분과 이야기했다. 하루는 그가 당뇨 합병증으로 두 발을 자르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몇 달이 지나니 화분에 물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산책을 하는데 그의 집 앞에서 중년의 여인 알렉스를 만났다. 아저씨의 엑스 와이프(전처)라고 했다. 병환이 깊어진 전 남편의 저녁거리로 사 온 피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따로 사는 전처가 와 그를 병간호하고 있어서,

얼마 후 그가 세상을 떠나고, 딸은 결혼했고 전처도 집으로 들어왔다. 아저씨처럼 가족이 꽃을 좋아해 담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여전히 꽃동산이다. 이따금 들려오는 인형 같은 에멀리의 울음소리로 사람 사는 집 같다. 이혼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한국과 달리 세상 떠날 때까지 인간미를 보여주는 미국의 착한 아내들. 도대체 이혼했던 아버지의 문제는 어디에 있나.

십년 전, 사십 대의 한 이웃은 이혼 후 초중고 학생 딸 셋을 데리고 이사 왔다. 싸게 산 집을 멋지게 고치느라 분주했다. 남자가 집에 자주 들락거려 궁금했는데, 친구처럼 지낸다는 전 남편이었다.

한집에 살지 않아도 이혼한 엄마와 아빠가 종종 돕는 모습을 보아서 인지 자녀들도 하나둘 결혼했다. 키가 작달막한 이웃 여인은 나보다도 훨씬 젊은데 손녀를 둔 할머니이다. 아, 부럽다.

내 테니스 친구 수잔은 전남편의

기타 밴드를 합주해 주려고 해마다 뉴욕으로 날아간다. 그녀는 재혼한 아내와도 친하게 지낸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의 인간관계인가.

또, 내가 아는 제리 아저씨는 아내의 전남편과 재혼 후에도 가깝게 지낸다. 지금도 두 남자가 집의 거실에서 야구게임을 보았다며 재미있게 나에게 전한다. 젊은 날의 악몽을 훌훌 털고 전처와 전남편과 하하 호호 하며 지내는 너그러운 성격을 난 좀 탐구해보고 싶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장수 비결 같아서다.

아직도 본인의 의견보다는 집안이나 어른끼리 결정을 좌우하는 한국의 결혼문화. 또 관심거리가 되는 현대판 유부남과 유부녀의 뻔뻔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는 미디어와 사회가 안타깝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달리 이혼율은 반비례현상이라니!

누가 무어라 해도, 마음씨 착한 아내를 만나 평생 살아가는 세상의 남자들은 큰 행운이고 축복이리라.

지혜로운 착한 아내들이여, 만만세.

## 음악의 매력

글 • 예종화(작가, 출판인)

「헨델은 영국에서 왕의 극진한 우대를 받은 작곡가이다. 그러던 그도 전쟁 때문에 한때는 고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떠나는 「헨델」을 위해 아일랜드 총독은 화려한 연주회를 열어 석별의 정을 나타냈다. 연주회를 위해 「헨델」은 그의 필생의 대작인 「메시아」를 불과 24일 만에 작곡했다.

연주회는 많은 청중들로부터 열광적인 기립 박수를 받았고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헨델에게 한 귀족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참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헨델」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는 이 곡을 청중들에게, 다만 재미를 주기 위해 작곡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응수했다.

음악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송고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사람이 평소 예사로이 느끼지 못하지만 깊숙이 숨겨진 감정을 환기시켜 주는 능력을 지녔다. 다시 말해, 음악은 그 자체가 사람의 심성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 주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음악이 그렇지는 않다.

음악은 사람의 정신 내부에 바다와 같은 광활함을 안겨 주는 힘, 때로는 지상의 날카로운 빛을 불러일으키는 힘, 부드러운 쾌감을 안겨 주는 명징성, 먼지가 끼어있는 마음을 말끔히 씻어 주는 값진 쾌락과 고요함, 더 나아가 깊은 고독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관능의 세계로 이끌어 내어 다시금 그를 사랑하도록 타일

###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심성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또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도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소식지가 몇 차례 반송되어 연락이 안 될 경우 소식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지나 소식지 수신 여부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다면 사무국으로 전화해주셔서 알려주세요!

• 이메일 : dean94@daum.net | • 전화 : 02,741-4696

리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좋은 음악은 마음에 맑은 시(詩)를 심어 주고 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도 한다. 그런 음악은 난해한 철학보다 훨씬 인생의 의미를 파악토록 하고 삶의 자세한 관찰력을 전해 준다. 또한, 해맑은 음악은 감정이 막힌 사람과의 관계를 시원히 뚫어 주고 사회와 인류와의 이음새를 끈끈히 연결해 준다.

이처럼 '음악은 하나의 값지고 높은 언어'라는 말은 이 경우에 수궁이 간다. 노래가 그렇고, 연주 또한 쾌락과 희열이 동반한다. 노래는 혼자라도 좋고 여럿이 함께라면 그 화음으로 신바람을 일으킨다. 불고 켜고 두드리는 각기 다른 악기는 모두가 제 소리를 낼 뿐 남의 소리를 휘방하지 않는다. 가령 협주곡과 교향곡을 들으면 잔잔한 물결 위에서 쾌적한 배를 탄 듯하고 또 하늘에서 우당탕 한꺼번에 내려앉는 듯 넘어지기도 한다. 내가 부르고 그가 연주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다.

그 까닭에 음악은 사람의 종이라도 고도 한다. 어느 것보다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천 갈래 만 갈래 흩어진 사람의 도덕심에 환한 조화를 가져와 선량한 양심을 불러낸다. 또한 때 없이 눈이 가는 사물의 조형적인 것에 모종의 파괴의 환상까지 집어넣어 준다. 실로 음악은 감정과 사상의 무한한 복잡성을 가진 예술이다. 어느 때는 혼돈 또 어느 때는 침묵만으로 듣는 자를 그냥 가만 두지 않는다.

잔잔한 선율이 물처럼 흐르다가도 그것이 클라이맥스에 치달을 때는 심한 현기증마저 느끼게 한다. 소리가 연결되거나 음조가 바뀔 때에는 전혀 엉뚱한 환상의 세계를 방황하기도 한다. 또 사람의 꿈과 희망이 미끄러지는 눈 위에 얼음처럼 급강하로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 이때는 인간과 시간 사이에 한 푼어치 질서마저도 없어지게 한다. 언제 음악이 이런 질서와 조화를 인간에게 주게 되는가를 강하게 후회하게 한다.

그래서 음악은 어떤 경우,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줄 때가 있다. 우울한 사람에게도 그렇거니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마저 음악은 마냥 즐거움이나 감흥일 수는 없다. 가령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는 모든 음악은 장송곡처럼 들린다. 그리하여 음악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한편, 음악은 모든 곳에 깔려 있다. 특히 자연 속에는 많은 음악이 있다. 가령 풀잎의 나부김, 꽃들의 하늘거림, 나뭇가지의 요동들은 모두 음악이다. 깊은 계곡의 물소리,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의 지저귀, 천 길 폭포의 낙수들이 모두 음악이다. 느닷없는 산울림, 숲속에서 주고받는 행인들의 말소리, 푸드덕거리며 나는 꿩의 울음, 쪼르르 달려오는 다람쥐의 눈동자, 고요한 밤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들도 음악 아닌 것이 없다. 산과 물, 시내와 바닷가에서는 사람들이

들이쉬는 숨소리까지 음악이다.

음악은 생명의 표현이다. 생명에서 음악을 제하고 나면 그 생명은 빈 껍질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음악이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슴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듣는다. 나는 때로 마음자리가 공허할 때면 맞는 음악을 가려듣곤 한다. 나의 삶은 언제나 허전하고 쓸쓸하지만 그렇다고 그때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아니다. 허전함과 쓸쓸함은 이것 말고도 풀 수 있는 길이 달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쉬운 내용의 독서를 하거나 한두 잔이지만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서는 여러 잡념이 먼저 내 머리 안에 혼들어 놓고, 술은 금방 깨고 나면 가슴에 상처만 남겨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치료하기에는 역시 음악 말고 더 좋은 벗이 없다. 이것이 내 오랜 버릇에서 터득한 체험이다.

## 아름다운 마무리

### 7월의 결연 대상자 - 강성녀 어르신

사실상 믿기지 않습니.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드시다니.....

걷는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데 이것을 마다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 신체 기능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아무리 아파도 자꾸 걸으셔야 하는데, 운동을 꺼리는 어르신들의 태도를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 정릉사회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개운산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도록 권유해드릴 참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새로 들어선 정릉실버복지센터에서 생활체조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시면 좋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성녀 어르신(86세)은 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가 더 아프고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료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요통 약을 복용하시는 강성녀 어르신은 한 평생을 같이 해온 몸이 이제 더 이상 걷는 운동조차도 허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짜리 방에 혼자 살고 계시는 강성녀 어르신은 지난겨울에 낙상으로 손과 다리에 기브스를 한 채 두 달여를 꼼짝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개성, 기초생활 어르신 중 고향을 떠나온 이북5도민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았던 실항민의 애환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르신은 27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야 했고, 둘째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이 낳은 손녀 하나를 강성녀 할머니가 혼자 길러왔습니다. 어느덧 손녀의 나이는 34살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입니다.

않고 늘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족의 바람은 어서 손녀딸이 새 엄마가 되어 증손주를 보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심리적 고독과 우울증이라는 진단 외에 가족기능의 복원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중요한 대안입니다. 올해 봄을 맞아 4월초, 강성녀 어르신이 원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섯 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써야 했고 도시가스 배관도 연결되지 않은 오래된 가옥에서 새로 지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알선으로 더 좋은 방에서 더 저렴한 월세로 살게 되었지만 보증금이 모자라 400만 원의 용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400만 원 용자금을 모금하여 강성녀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자 합니다.

강성녀 어르신에게 손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할 때 손녀는 할머니를 찾아가 간호해드립니다. 결혼해 영등포에 살고 있는 손녀는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할머니를 찾아뵙는 효녀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비록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지만 고등학교 3년을 장학생으로 졸업했던 손녀딸을 할머니 역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동안 손녀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좁은 월세 방에서 하루 밤을 묵어가기도 하면서 유일한 가족의 도타운 정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늘 아래 서로에게 의지했던 이 가족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7월 6일(일), 7월 27일(일) 길상사 경내

## 부잣집 할머니는 왜 자살했을까?

글 • 이정숙(수필가)

궁전아파트의 할머니 한 명이 자살을 했다. 궁전아파트는 살기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파트이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까지 없는 것 없이 갖춰 놓은 슈퍼마켓도 있고 널찍한 놀이터도 있고, 아름다운 공원도 있으며 푸른 연못도 있다. '궁전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의 얼굴은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해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써 두 번째 자살사건이 일어났다. 당황한 궁전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살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대책마련에 고심한다. 혹여 자살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소문으로 인해 아파트가 '똥

값'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한 날 밤, 주민 대책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70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터서 쓰는 사장님 댁. 반상회 날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에 아주 조그마한 어린이 한 명이 끼어있다. 엄마를 따라간 아이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해달라는 회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요, 저요.'하며 아이가 손을 번쩍 든다. 하지만 아이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핀잔만 듣는다.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이런 의미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베란다에 견고한 쇠창살을 설치하자.' '베란다 쪽으로 난 유리창에 새로운 자물쇠를 채우자.' 아이의 속이 바짝바

짝 타들어간다. 아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도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는 친구와 통화 중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셋이란다. 창피해 죽겠다. 다들 하나 둘인데 나만 셋이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어쩌다 군더더기로 막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이 고생인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크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판단한다. 아, 나의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그동안 엄마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아이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죽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사람들 눈에 덜 뿔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아이는 그곳에서 민들레꽃을 본다. 시멘트로 뻘뻘하게 발라 놓은 옥상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민들레꽃이 피어있었던 것이다. 흙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를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

들레꽃을 보자 아이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죽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아이의 자살 시도 사건은 다시금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한 걸로 끝이났지만 아이는 그 일로 인해 사람은 언제 살고 싶지 않은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없어져줬으면 할 때 살고 싶지 않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다.

박완서 작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올해 76세인 김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야채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 할머니의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려 11시간이다. 야채가게가 갑자기 바빠질 때도 잠깐씩 일을 도와주러 나오신다. 팔순을 앞둔 노인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 고생이나 할 사람도 있겠지만 할머니는 늘 싱글벙글이다. 물론 돈을 벌어야 할 만큼 궁핍한 건 아니다. 학교 선생님인 딸과 손자가 용돈을 충분히

주고 잘 사는 아들이 큰돈을 쥐어줄 때도 많아 할머니 호주머니에는 돈이 마를 날이 없다. 하지만 바쁜 사람 일손도 떨어주고 당신 소일거리도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

김 할머니에게도 궁전아파트에 살다 자살했던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이었다. 사별하고 혼자 된 딸을 집으로 끌어들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던 할머니를 아들이 모시고 간 다음부터 자꾸만 죽고 싶어진 것이다. 아들네 집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50평짜리 아파트였다. <옥상의 민들레꽃>에 나오는 궁전아파트만큼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아들은 모 관청의 고위 간부였고 며느리 역시 공무원이라 용돈도 넉넉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좁은 집에서 딸네 식구와 북적대며 살던 때가 늘 그리웠다. 아이가 없는 아들네 집은 밤낮없이 적막강산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걸핏하면 외식이라 식사준비로 바쁠 일

도 없었고 집안을 어지를 사람이 없으니 치울 일도 없었다. 빈둥빈둥 놀며 하루를 보내는 게 무료했지만 며느리 눈치를 살피느라 할머니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김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건 며느리였다. 대놓고 구박하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마주쳐도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걸 달가워하질 않는구나, 나와 마주앉아 밥도 먹고 싶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문득문득 죽고 싶었다.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도 견디기 힘들었고 싸늘한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건 더더욱 고역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 딸이 나섰다.

“내겐 엄마가 필요하다. 내가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

아들이 펼쩍 뛰었다.

“지금 모시고 가면 엄마가 똥오줌 못 가려도 끝까지 책임져라.”

아들에게는 자신의 체면이나 ‘아들로서의 도리’가 중요했다. ‘어떻게 했기에 어머니가 다시 딸네 집으로 갔느냐’는 식의 의구심서린 눈길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의 여동생에게 못을 박았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시들어가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딸은 오빠의 겁박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돌아온 김할머니는 지금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다. 비록 아들네처럼 고급스런 집은 아니지만 발뺌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방 냉장고는 늘 그분이 즐기시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고, 옷장엔 사시사철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는 비단옷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그걸 양로원에 기부했는데 열 사람의 노인네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궁전아파트에 살다 자살한 할머니의 며느리가 주민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시어머니가 자살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을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건 민들레꽃을 발견한 다음 죽고 싶던 마음을 거둔 아이 말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없어져 줬으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신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이다.

돈이 최고이고 돈만 있으면 못하게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이 있다. 이웃이나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인간적인 정만이 우릴 물질만능주의라는 망령에서 구해낼 것이다.

##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렸다. 17개 시도에서 13개 시도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으니 그런 소리가 나올만하다. 서울(조희연), 경기(이재정), 인천(이청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보수 텃밭'이라는 부산(김석준)과 경남(박종훈)에서도 승리했다.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에서도 진보 후보가 교육감 자리를 차지했다. 세종 최교진,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이 그 주인공이다. 호남지역과 제주, 강원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승리했다.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제주 이석문, 강원 민병희가 그들이다. 이번에 서울에서 당선된 조희연 후보를 비롯한 13개 지역의 당선자를 왜 진보교육감이라고 할까? 엄밀하게 말하면 진보교육감 후보란 말은 옳지 않다. 사전

적의미로 보수란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며, 진보란 '역사 발전의 합법적 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을까?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수는 좋은 것, 진보는 나쁜 것이요 보수는 안정이고 애국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진보는 공산주의요, 종북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치, 경제나 교육부문에 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수와 진보로 표현하는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이란 어떻게 다를까? 보수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다. 경쟁과 효율을 통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자가 선이라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서는 교육관이다.

이에 반해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관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고 누구나 다 함께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시험성적으로 서열을 매겨 일등지상주의를 치닫는 보수와는 달리 경쟁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을 보면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와 같은 공공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과 같은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정부와 학교는 공급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상품'관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학교가 인간교육이 아닌 입시학원으로 만들고 학원에서 선행학습이나 인성교육을 하는 웃지 못할 현상을 만들어 놓았다.

경쟁지상주의는 고등학교를 국제고, 영재고, 자사고,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 시키고 대학을 일류, 이류, 삼류로 만들어 놓았다. 고등학교는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되고, 우수학생을 뽑아간 대학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취업준비를 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더 이상 학교가 황폐화되고 학생들에게 '가만있어라'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반란이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교육감들이 하



겠다는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진보 교육감 하면 혁신학교나 무상 교육 같은 정책들이 핵심이다. 이들의 공약은 승자독식의 교육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교육, 소통과 학생중심의 교육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당선된 최고진 당선자 공약의 경우를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그가 공약한 정책 중에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란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지역의 특성상 도시 외곽에 4~5개의 고등학교를 묶어 하나의 캠퍼스처럼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여러 단과대학이 하나의 교정에 모여 있는 대학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인문계고를 외국어고나 예술고와 묶어 마치 대학처럼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므로 학생들이 자기 관심사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들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교육이 당선된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물론 교육과

정을 개정하는 권한과 같은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 또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각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전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진보교육감들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 그들의 철학을 실현해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교육감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예산을 승인하고 지원해 줄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듯 지방의회 구성을 보면 그들이 공약한 정책들을 수행하기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소위가 의결한 ‘교육감임명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1일 지방분권분과위에 올렸다”며 7월 중 교육감임명제에 관한 최종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감의 역사를 보면 정부수립 후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1949~90)했다. 그 후 교육위

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오다(1991~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998~2006)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 31조 ④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 정신에 비추어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겠다는 진보교육감의 철학이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면

-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Her>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사랑’ 하고 계신가요?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 하는 것 말고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마냥 행복한 그런 사랑 말이에요. ‘아름답고 고운 것 보면 당신 생각’ 나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아, 질문이 잘못 되었군요. 처음부터 ‘연애’ 하고 계시냐고 물어볼 걸 그랬나봐요. 그래요. 연애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적건 많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성이건 동성이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건 안되었건, 아무튼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직 솔로라면 꼭 좋은 인연을 찾게 되길 바라구요. 연애중이라면 애인이라는 관계,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먼저 박수를.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 관계가 날마다 새로운 연애 감정으로 이어지며 계속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연애에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으니까요.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애만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게 없죠.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라 누군가와 의 교감과 배려, 존중이 없으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어렵거든요. 연애는 상대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배려 받고 존중받으며 이해하는 일이지요. 누군가 나를 뜨겁게 좋아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항상 혹은 자주 곁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혼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연애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의

로움을 덜어주죠. 남자 혹은 여자로서 자신의 매력을 확인받고, 인간적인 장점과 매력을 인정받으며 서로의 눈부처가 된 자신을 보게 되면 행복해요. 그리고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상대에 비친 나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되죠. 혼자 있으면 결코 모르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연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찾으려고 하죠. 소개팅을 하고, 동호회에 나가서 연애 상대를 찾고, 직장과 학교 등에서 번개처럼 사랑이 찾아오기를 꿈꾸죠. 외국 영화를 보면 자신의 특징과 취향을 신문이나 잡지 같은 곳에 소개해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연애도 하나의 스펙 같아 20대에 연애를 하지 못하면 정상인이 아닌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각종 연애 지침서들이 많이 팔리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애 멘토링이 빈번하죠. 심지어는 연애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 같은 것들이

등장할 정도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접촉이 갈수록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에서는 연애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가 깨진 후의 상실감과 배반감을 견디지 못해 벌어지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는 걸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사람은 결국 누구도 내가 아니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연애를 통해 다 이루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아예 인간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인간처럼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시시콜콜 싸울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랑이 깨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할 영화 <Her>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Her>의 주인공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 분)는 아내와 별거중이예요. 아내와

별거중이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죠. 그러다 테오도르는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그가 사랑하게 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운영체제(OS)예요. 아이폰에 있는 시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운영체제를 우연히 만나게 된 테오도르는 사만다라고 설정된 여성 목소리의 운영체제와 늘상 붙어 다니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운영체제를 사랑하게 되요.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모든 대화를 재치 있게 다 받아주고 지적 능력도 우수하죠. 아니 우수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죠. 게다가 테오도르의 삶에는 그다지 개입하지 않으니 훨씬 편해요. 그래서 테오도르는 갈수록 사만다를 사랑하게 되요. 이런 설정이 이상하게 보일만도 한데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 사회로 설정되어 있는 극중에서는 자연스럽게 용인되더군요. 심지어 테오도르와 사만다는 목소리와 대화만으로도 실제 성인들과 다를 바 없는 성적 쾌감까지 느끼지요.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고 사만다의 목소리만을 말

아 연기하는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는 가히 그녀 연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실감이 넘쳐요. 오히려 얼굴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 목소리에 새겨진 감정의 굴곡이 더 또렷하게 와 닿더군요. 덕분에 영화의 흐름에는 전혀 무리 없이 빠져들게 되요.

하지만 이렇게 운영체제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만으로 끝난다면 영화의 의미가 없겠지요. 영화에서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아내와 사랑을 나눴던 순간을 끊임 없이 돌이켜 봅니다. 왜 그렇게 좋았던 사랑이 끝나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지를 돌이켜 보는 거죠.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은 테오도르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절친인 에이미 커플조차 결국 헤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테오도르의 직업이 누군가에게 대신 편지를 써주는 대필 작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가장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야기

를 꾸며냄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허구의 사실을 창조해서 진심을 느끼게 하는 이가 허구적 존재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게다가 테오도르의 사랑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아요. 알고 보니 사만다는 수많은 다른 사람과도 각각 다른 젠더와 역할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테오도르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테오도르는 이처럼 사만다와 교감하고 사랑하고 상처 받으면서 자신이 지금껏 사랑에 대해 취했던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요. 테오도르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사랑을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지 않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지금껏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제멋대로인 사랑이었어요.

테오도르는 영화의 말미에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지요. 사만다 역

시 몸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테오도르를 떠나요. 관계와 사랑을 통해 성숙하게 되는 것은 테오도르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운영체제이지만 인간과 진배없는 운영체제와의 교감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예요.

단지 설정만으로 흥미를 끌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영화가 아니에요. 흔한 멜로 영화와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영화는 설정과 메시지만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두 주연배우의 연기도 훌륭하고 시각적인 구성과 색감도 빼어나요. 영상미가 인상적인 작품이고, 유명 밴드인 아케이드 파이어가 맡은 음악 또한 근사해요.

참 오랜만에 괜찮은 멜로 영화가 나왔어요.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연애하실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길.

# 이성계의 꿈

〈안변·석왕사〉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조선국을 세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아직 장군 시절일 때다. 날로 부패해 가는 고려왕조를 탄식하던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팔도강산을 두루 돌며 무예를 익히는가 하면 명산대찰을 찾아 제불보살님의 가호를 빌었다.

그가 함경도 안변(安邊) 땅에 머물던 어느 날 밤, 이성계는 참으로 묘한 꿈을 몇 가지나 꾸었다.

「거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꿈을 하룻밤에 몇 가지나 꾸다니…」

이튿날 새벽 눈을 뜬 이성계는 간밤 꿈자리가 어찌지 석연치 않아 하나하나 꿈을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 해봤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다. 풀리지 않는 꿈 때문에 답

답해하던 그는 대장부 체통도

접어둔 채 그 마을에서 해몽을 잘 한다는 노파를 찾아갔다.

「내 간밤에 하도 이상한 꿈을 꾸었기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해몽을 좀 부탁하오.」

상세히 설명하는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은 점쟁이 노파는 한동안 골똥히 생각에 잠기더니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대장부가 받은 꿈의 계시를 어찌 미천한 아낙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40리쯤 들어가면 설봉산(雪峰山)이 있고 그 산허리 조그만 토굴에 신승(神僧)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 도인 스님은 토굴을 파고 공부하신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굴 밖을 나오지 않

았다 합니다. 그 스님께 가면 잘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 길로 설봉산 도인 스님을 찾아갔다. 토굴에 당도하니 스님은 선정(禪定)에 들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스님께 삼배를 올린 이성계는 찾아온 사연을 밝혔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구요? 거 어디 들어봅시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온 고을 닭들이 일제히 울어대더니 집집마다에서 방아 찧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꽃이 마치 비 오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시 또 꿈은 이어져 저는 어느 집 헛간에 들어가서 서까래 세 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다가 거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꿈을 깨게 됐습니다. 무슨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요?」

「참으로 그런 꿈을 꾸었다면 함부로 발설해선 안 될 꿈입니다.」

스님은 은밀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 꿈은 아주 길몽입니다. 마을의 닭들이 일제

히 울어댄 것은 「꼬끼오 꼬끼오」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고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며 高貴位(방아 찧는 소리는 귀하게 될 것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또 헛 곳간에서 서까래 세 개를 가로졌으니 그 모양은 마치 임금'왕'자와 같지 않습니까.」 스님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흥분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어느새 상기된 얼굴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님, 그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말없이 시 한 수를 적어 내놓았다.

花落能成寶 鏡破豈無聲(화락능성보 경파기무성)

(꽃이 떨어졌으니 열매가 맺힐 것이요, 거울이 깨졌으니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스님은 다시 이성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대 얼굴엔 군왕의 기상이 가득하오. 허나 아직 겁기(劫氣)가 다 벗어지지 못했소. 성현에게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지어야 일이 성취될 것이오.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터이니 그 동안 이곳에 절을 세우고 오백 나한을 모셔 기도를 잘 올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일은 나만 알고 비밀을 지킬 터이니, 장군도 꿈 이야기를 밖엔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오.

스님께 스승의 예를 올리고 물려난 이성계는 기도 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변 땅에 절을 세우고는 후일 임금 왕 자를 해석했다 하여 석왕사(釋王寺)라 불렀다.

그 후 이성계는 오백 나한을 모시기 위해 석왕사 경내에 응진전을 건립했다.

때마침 함경도 길주에 있는 광적사가 병화로 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그 절에 방치된 대장경과 오백 나한상을 석왕사로 모셔 오기로 했다.

길주에서 원산포까지 배로 옮겼으나 원산서 석왕사까지는 이성계가 직접 무거운 돌나한님을 한 분씩 등에 업어 정성스럽게 모셨다. 이렇게 4백 98상을 옮기고 마지막 두 분이 남게

되자 그는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었는지 두 분을 한꺼번에 옮겨 모셨다.

다음날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살펴보니 이게 웬일인가. 간밤에 분명히 오백 나한님을 다 모셨는데 맨 나중에 모셔온 존상 한분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놀란 이성계는 사방을 두루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단념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그 존상이 나타나 줄이야.

「그대의 신심이 그렇게 여일치 못해서야 되겠는가? 한 분씩 업어 오시다 나만 뒷붙여 업어가다니. 나는 그렇게 정성이 부족한 푸대접을 받기가 싫네. 해서 모향산 비로암에 와 있으니 그리 알게.」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성계는 날이 밝는 즉시 모향산 비로암으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곳에 나한상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즉시 달려간 이성계는 정중한 자세로 참회한 후 다시 그 나한님을 모셔왔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그 나한

님은 또 없어지고 말았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그 나한존상의 자리에 명패만을 모셨다.

석왕사 응진전에 나한님이 5백 명에서 한 분 모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라고 한다.

「큰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준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이성계는 천 일간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올려 마침내 역사의 새 장(章)을 열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제일 먼저 신승(神僧)을 찾아 왕사(王師)로 모시니 그 스님이 조선조

5백년 기반을 닦는 데 큰 도움을 준 무학 대사(無學大師)였다.

이성계는 등극 후 명(命)하여 석왕사를 도(道)에서 으뜸가는 거찰로 만들었다.

건문(建文) 신사(辛巳) (태종1년 · 1401)

년에는 친히 이곳에 와 동구(洞口)에 소나무를, 뜰에는 배나무를 심었으니, 후일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하고 좋은 배를 임금에게 올린 것은 그때의 성교(聖敎)였다.

이렇듯 유서 깊은 절이나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의 사찰」일 뿐이다.

###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자연을 아끼면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나만의 비결이나 수행과 신행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충만함이나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 원고를 보내주시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낼 곳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새)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어진 사람

글 • 맑은 만남(淸逢)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해준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어려운 형편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의 재해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과 지역모임 및 사회복지사의 추천과 관심을 기다립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은 두 해 동안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아동 등 20여 명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드렸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이라는 세상 사업을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 지원 내용: 수술비, 간병비, 의약비 등을 포함한 병원 치료비(최대 200만 원 한도)
- 신청 기간: 2014. 6. 10(화) ~ 2014. 7. 31(목)
- 선정 발표: 2014. 8. 8(금)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각 부
  - ②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첨부(해당자의 경우)
  - ③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전·월세계약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부채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
  - ④ 의료비 지원 후 병원으로부터 영수증 증빙
- 신청 방법: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① 접수: 이메일(clean94@hanmail.net), 우편, 방문 접수
  - ② 추천 자격: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각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사회복지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  
 (사)맑고 향기롭게 www.clean94.or.kr / ☎ 02.741~4696





#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난히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3%** (OECD 평균의 4배)

거리에서 폐지나 고물을 주워 팔아서 생계를 꾸리는 노인은 우리나라에 **175만 명**  
이분들의 **하루 평균 수입은 5천원**인데 이마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큼니다.



※ 폐지 1kg =



※ 공병 1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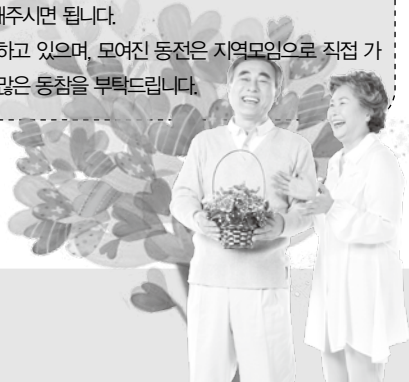
※ 집에서, 사람장에서 굴러다니는 동전 300원을 모으면 폐지 줍는 노인에게 공병 10개 또는 폐지 5kg을 후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과 갈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이나 갈상사 총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 - 013 - 787953**(맑고 향기롭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모임에서도 동전 모금통을 배포하고 있으며, 모여진 동전은 지역모임으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지역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성북구관내 방과후교실 아동들과 함께하는 숲 체험교실

본모임은 성북구 관내 지역아동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활동으로 숲체험교실을 7월 29일 진행합니다. 월곡청소년센터 방과후교실 아동을 비롯하여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과 함께 강원도 평창 오대천과 산촌마을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숲 체험교실은 청소년기에 공부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합니다.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 8월 15일 숲가행 안내

올해 숲가행은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금)에는 특별일정으로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수영은 법정스님의 고향 마을이며, 1597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명량에서 일본수군을 대파한 역사적인 곳으로 진도가 보이는 바닷가 포구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65세 이하
- 사전접수 : 7월 7일(월)부터 전화 접수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운동화, 필기구 등 (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 : 회원 35,000원 / 비회원 4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니눔의 기부문화 '아름다운 마무리' 대학생, 일반인 봉사자 모집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연속 8년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니눔의 기부문화 캠페인을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전개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하는데 동참해줄 활발한 성격의 가진 대학생, 일반인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녹색나눔장터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 및 회원들과 갈상사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 금강경 독송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농산물로 펼쳐지는 '맑고 향기롭게 2014 녹색나눔장터'가 10월 까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벼룩시장에 참여하실 분은 수익금의 20%를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하며,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줄 봉사자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내가 만들어 쓰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1. 천연 헤나 샴푸
  - 헤나 잎에서 추출한 모발 기능성 재료로 두피 중화와 피지 과다 분비 억제, 탈모 예방 및 비듬 제거에 효과적



### 2. 세라미드 로션

- 세라미드는 각질층의 구조 형성이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 성분으로 피부 건조를 막고, 피부노화방지 및 주름 개선 등에 효과적

### 3. 한방 상백피 에센스

- 뽕나무의 뿌리껍질에서 추출한 재료로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남

### 4. 한방 비누

- 5가지 한방 가루를 재료로 하며, 적당한 세정과 자정능력, 염증성 질환 치료 및 피부 진정에 효과적

- 일정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삼푸, 로션, 에센스-길상사내 세계일화실 / 한방 세안 비누-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옆)
- 화장품 만들기 일정은 본모임의 일정, 강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 문의 : 02.741-4696

### 결식아웃 밀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본모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430여 가정에 2가지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는 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날씨는 덥지만 봉사자간에 웃음으로 시원한 여름을 함께 하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동장, 도장을 자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시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시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1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아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3,4,17,18,24,25,31일)/김치(1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7,14,21,28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3,20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화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6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

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발벗 봉사자 정기모임/첫째 화요일(22일)/오후 1시 30분/첫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7월6일(일), 7월 27일(일)/길상사 경내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2,9,16,23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1,8,15,22,29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7월 27일(일)/길상사 경내
- 월곡청소년 센터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2일(수)
- 성북구관내 방과후교실 아동들과 함께하는 숲 체험교실/29일(화)

#### ❖ 일반사업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 외환은행 117-13-60373-4
-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웃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고아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 대구모임 (053-753-8883)

#### 7월 정기 활동 안내

- 정기 홍보활동/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경로급식/매주 토요일/10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7월 정기 활동 안내

- 자비공양의집(무료급식사) 자원봉사자 일손이 부족합니다. 자비공양의집은 년중 매일 200인분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같이 하실 자원봉사자님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장소 : 자비공양의 집(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일시 : 매월 넷째주 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
- 내용 : 점심준비, 배식, 설거지 등
- 문의 : 사무국 (055)266-0170
- 보현행원(무로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봄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쌀, 말벗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1시30분/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7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이동목욕활동/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스림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스림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7월 정기 활동 안내

- 도시락 나눔 활동/매주 월요일~금요일/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활동
- 공양 나눔 센터 운영/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한 송이 연꽃의 맑고 향기로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나눔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한 송이의 연꽃이 맑고 향기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해주시고, 여러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시고, 봉사자를 위해 봉사를 해주시고, 먹을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이 루 다 말할 수 없고, 소식지에 다 담을 수 없는 자비의 손길들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그 많은 향기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공익목적으로 진하고 그윽하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각 지부 사무국에서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후원과 실천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라니기도**

- 일시: 7월 5일(토) 오후 8시~10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 장소: 극락전
- 백중2재: 7월 6일(일)
- 백중3재: 7월 13일(일)
- 백중4재: 7월 20일(일)
- 백중5재: 7월 27일(일)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7월 12일(토) 오후 9시~7월 13일(일) 새벽 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 스님

**2015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

- 일시: 8월 6일(수)~11월 13일(목)
- 시간: 오후 2시~4시
- 장소: 극락전
- [입재: 2014년 8월 6일(수) 9시 50분]
- [회향: 2014년 11월 13일(목)]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7월 12일(토) 오후 8시 30분~7월 13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 보호대

**여름 선 수련회**

- [1차. 초등학교 1학년~3학년]
- 일시: 7월 29일(화)~7월 30일(수)
- 참가비: 5만원
- [2차. 초등학교 4학년~6학년]
- 일시: 7월 31일(목)~8월 2일(토)
- 참가비: 6만원

**백중90일 아미타기도**

- 일시: 5월 13일(화)~8월 10일(일)
- 시간: 오전 9시50분

**부탄·카트만두 성지순례 안내**



부처님이 평생 걸으신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느끼고 또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또한 불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영광이자 평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성지마다 부처님의 숨결과 승고한 가르침이 깃든 불교 왕국 부탄과 카트만두로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순례 기간: 11월 24일(월) ~ 12월 2일(화) / 7박 9일
- 동참금: 370만 원
- (여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크로드 여행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720-9600)
- \* 기타사항은 길상사 홈페이지 참조 및 증무실 방문 문의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8월 2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8월 9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8월 9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13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8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6재	8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7재(회향)	8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여름 선 수련회 3차(성인)	8월 4일~8월 7일	오후 3시 40분	설법전
여름 선 수련회 4차(청소년)	8월 8일~8월 10일	오후 3시	설법전
여름 선 수련회 5차(성인)	8월 11일~8월 14일	오후 3시 40분	설법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4시/오전9시 50분/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4시/오전9시 50분/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20분	소강당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맑고 향기로운 여행...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 2014년 여름 선 수련회

길상사 여름 선 수련회에는  
만남과 행복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와 지혜로운 대화!  
참 나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있는 곳!

도심에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공생하는 길상사에서  
텃빈 충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대상	비용
1차	7월 29일(화) ~ 7월 30일(수)	초등1~3학년	1박2일(5만원)
2차	7월 31일(목) ~ 8월 2일(토)	초등4~6학년	2박3일(6만원)
3차	8월 4일(월) ~ 8월 7일(목)	성인	3박4일(15만원)
4차	8월 8일(금) ~ 8월 10일(일)	중고등학생	2박3일(8만원)
5차	8월 11일(월) ~ 8월 14일(목)	성인	3박4일(15만원)

☎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수행터 - 템플스테이 - 여름 선 수련회)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 / 길상사템플스테이

☎ 문의 및 접수 : 템플스테이 02-3672-0035

중무실 02-3672-5945

